

소방력 보강해 골든타임 확보한다

광주소방, 수완지구 안전센터 신설...2032년까지 장덕동에 소방차 등 장비도 교체 "인력 최대한 활용 안전한 광주 실현"

광주소방안전본부(이하 광주소방본부)가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5년에 걸쳐 노후 소방차량 117대를 교체한다.

25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력 보강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먼저 2027년까지 수완119안전센터(이하 수완센터) 신설을 위한 내부 결재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소방 수요는 인근 하남센터와 신가센터에서 도맡고 있는데, 이곳에서 출발한 소방차가 '골든 타임'인 4분 내로 수완동과 장덕동, 흑석동 등 수완지구 곳곳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광주소방본부 설명이다.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소방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완지구의 화재 출동 건수는 지난 2020년 85건, 2021년 152건, 2022년 211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조 출동 건수 또한 2020년 280

건에서 2022년 432건으로, 구급 출동 건수도 2020년 2487건에서 2022년 3420건으로 폭증했다.

수완센터 신설 부지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1680번지로 잠정 결정됐다. 하남센터로부터 2.2km, 신가센터로부터 2.8km 떨어진 중간 지점이다.

총 예산 50억 8000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1046㎡ 공간에 지상 3층, 연면적 990㎡ 규모로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31년 6월까지 부지 매입, 건축심의, 설계영역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32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펌프차, 물탱크차 등 노후한 소방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 소방차량은 내용연한(사용 가능 햇수)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즉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총 예산 308억 4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20대, 2024년 27대, 2025년 27대, 2026년 31대, 2027년 12대 등 5년 동안 총 117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은 펌프차 28대, 물탱크차 6대, 구급차 22대, 화학차·굴절차·사다리차 등 기타 차량 61대 등

이다.

이밖에 특수구조, 안전체험교육 등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119특수구조단, 빛고을안전체험관 2개 부서를 본부 직속기관으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119특수구조단은 명칭을 119특수대응단으로 바꾸고, 드론운영대 인원을 4명에서 7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기존 남부소방서 소속이었던 남구119안전교육센터도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산하 부서로 편입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하지만 오는 2027년까지 소방 인력 총원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소방본부는 올해 남구 119안전교육센터 직원 3명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인력 총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조 때문에 전국의 소방서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라 당분간 인력은 동결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센터와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해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소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첫 소방헬기 26년만에 '퇴역'

세월호 참사 등 2700여회 출동...빛고을안전체험관 전시

26년 동안 2700여회 출동하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켜 온 광주 최초의 소방헬기인 '광주 001호' <사진>가 퇴역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광주 1호 소방헬기(BK117B-2)가 올해 퇴역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본 가와사키사에서 제작한 이 헬기는 지난 1997년 5월 광주소방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최대 10명을 태울 수 있고 한 번 이륙하면 최대 550km를 날 수 있다.

34억여원을 들여 구입한 뒤 26년 동안 총 3460시간 비행하며 광주지역 각종 구조·구급 현장에 투입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2021년 학동 참사 당시에도 구조 활동에 사용됐다.

광주 001호기는 인명구조 278건, 환자이송 242건, 산불진화 358건, 교육훈련 1103건, 정비비행 370건, 산불홍보 224건, 항공순찰 97건, 기타 172건 등 총 2745회의 비행을 완수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신규 다목적 중형 소

방헬기(AW139)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노후된 헬기를 처리하기로 했다.

매각하는 방안과 전시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고민하던 광주 소방당국은 광주 001호기가 광주 최초 소방헬기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는 점과 140시간을 더 비행하게 되면 3600시간의 도래 정비비(20억원)가 들어 감정가(3억원)가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하반기 중 광주시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지역 최초 소방헬기라는 의미를 살리고, 시민들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소방헬기 실물을 가까이서 보고 탐승체험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연인원 17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부산시 사례도 전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광주시가 보유 중인 소방헬기는 1호 헬기를 포함한 2대(AW139)로, 신규 도입된 헬기는 6월 중 훈련을 마치고 본격 투입된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건강검진 스미싱 문자 주의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문자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 수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 보기' 등 내용을 담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유행하고 있다. 이들 메시지에는 가짜 URL이 포함돼 있는데, 이 URL에 접속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해킹에 노출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공단에서 보내 온 문자메시지와 차이가 있다. 공단이 보내 온 문자메시지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와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외에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심폐소생 골든타임은... 광주시 동구 총장로·금남로 지하도상가 입주 상인들이 25일 광주동부소방 응급구조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특전사동지회 5·18 조사위 출범은 이율배반"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가 먼저"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사)특전사동지회의 '5·18 자체 조사 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다"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전사동지회는 국가 차원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출범하고 이것이 진실 규명의 척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특전사동지회 등이 추진한 지난 두 차례의 5·18 계엄군 증언회 행사는 기존 언론이나 5·18진상

조사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맹탕·재탕하는 수준이었다"며 "이를 보면 자체조사위 활동이 책임있는 진실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체조사위가 최소한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본적인 대국민공동선언식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먼저다"며 "대책위는 자체조사위 활동을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단호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진도군 주먹구구 행정 논란

소유주 동의없이 공사 진행 뒤 소유권 이전 요구

진도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군내면 분토리 마을 개발을 위해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분토지구 받기반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 관련 일부 주민들이 진도군의 안일한 행정 탓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외지에 살고 있는 땅주인에게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공사를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달 '해당 사업에 편입된 땅 2㎡에 대해 진도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것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토지에 공사가 진행됐으니 보상을 받으라는 공문이 뜬금없이 왔다"며 "2㎡라지만, 사유지에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진도군은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안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지적도와 실제 측량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동의받지 않은 2㎡의 땅에 공사가 진행된 잘못은 있다"며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년여 전에도 진도군이 실시한 다른 배수로 공사에서 제대로 된 지적측량조차 하지 않은 채 토지 소유주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사 도중 지적측량을 한 결과 해당 부지가 A씨 소유의 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 사유지에 대한 공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은 "기존 지적도상 A씨 측 토지로 파악됐지만, 측량 결과 A씨 소유의 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